



『인디언의 복음』

E.T 시튼 편찬, 김원중 옮김, 두레, 2000

안 치 운 · 호서대 예술학부 교수 | 연극평론가

나는 아직 미국에 가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이 영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화문 네거리 미 대사관 앞에 줄을 서야 하고, 인터뷰를 하는 일부터 지문을 찍는 입국절차에 이르기까지 영 마뜩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란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삶을 지속할 수만 있었다면, 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토록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소박한 상상을 해보았다. 우리들에게 인디언의 모습은 영화나 소설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다.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전투적이고, 늘 백인들이 제거하는 악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아메리카에 사는 저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인디언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하는 가정을 해보면서 지난 주 부리나케 책방에 가서 인디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구입해 읽었다.

내가 읽은 인디언에 관한 책 가운데, 『인디언의 복음』은 어릴 적 읽었던 『시튼의 동물기』(원제 '내가 알고 있는 야생 동물들 : Wild Animals I have known')의 저자인 어니스트 톰슨 시튼이 지은 책이다. 그는 온 생애에 걸쳐 인디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 책은 그가 그것을 바탕으로 인디언의 삶과 철학을 기록한 것으로 평생의 역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연 애호가, 박물학자로만 알고 있던 저자 시튼은 서구 문명의 대안으로 인디언의 문명을 제시한다. 그것은 무차별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개발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서구문명에 대한 반기로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해 온 인디언의 삶과 철학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인디언의 삶이 지닌 영성 즉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연관성과 일체성이야말로 서구문명보다 훨씬 더 원숙한 문명이라고 옹변하고 있는 이 책은 읽기도 매우 쉽다. 다 읽고나면 미국이 오늘날 저렇게 광포하고 오만해진 이유를 알게 되고, 인디언들과 그 문명을 왜곡한 백인문명을 비판하게 된다. 원시적(Primitive)이란 말은 '미개한' · '야만적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최초의' · '본연의' · '가장 근원적인'이라는 뜻이며, 인디언의 삶 속에서 생태적 삶의 원형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이 책 속에 있는 홍키퍼파 수우족 추장이었던 시팅 불(앉은 황소)은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아, 봄이 왔다... 한 알 한 알의 씨알이 눈을 뜨고, 한 마리 한 마리의 짐승이 첫 울음을 터뜨린다. 이 신비한 힘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이나 가까이 사는 짐승들이 우리와 똑같이 권리를 찾고 이 대지에 사는 것을 인정해 왔다"(256쪽) 그리고 워킹 버팔로(견는 들소)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네는 나무들이 속삭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실제로 나무는 말을 한다. 나무들은 서로 대화를 하며, 만약 당신네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당신네에게도 나무는 말을 걸어 올 것이다"(258쪽)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아메리칸 인디언을 뜻하는 『레드맨(Redman)의 복음(Gospel)』이다. 부제는 '그들의 삶과 철학(A Way of life)'이다. 이 책은 '현대 문명의 특징인 극단적인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이에서 비롯된 소외와 단절 대신 경건한 영성과 자기희생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과의 유대와 조화를 바탕으로 한'(역자의 글에서 인용) 인디언 문화개론서라고 할 수 있다. 시튼은 자연과 야생동물들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디언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자연 속에 있기를 좋아했던 시튼은 인디언의 삶을 흉내내기 위하여 숲 속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그것에 관한 경험은 그가 쓴 책 『작은 인디언의 숲』(원제 'Two Little Savages', 두레에 잘 나타나 있다. 다른 책으로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래리 J 짐머맨 지음, 김동주 옮김, 창해, 2001)를 추천한다.

